

영암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토요일도 문 연다

덕진본점·삼호·시종분점, 6월까지 농기계 37종 718대 대여 최소 7일 전에 사전 예약 필요...농기계 임대료 50% 감경

영암군의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 파종기인 영농철을 맞아 매주 토요일 문을 열고 농기계를 빌려준다.

덕진본점과 삼호·시종 분점에서 6월까지 이어지는 영암군의 이번 주말 연장 운영은, 영농철 농기계 수요에 대응하고, 농가 일손을 덜기 위한 것.

3곳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37종 71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영암 농업인에게 최대 3일간 임대해 주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임대날짜를 예약한 뒤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봄·가을 영농철에는 최소 7일 전에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영농경비 증가와 농촌 인력난에 농가가 대응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경하고 있다.

동시에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기종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토요일 사업소 업무가 농촌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6,200여 농가에 농기계 7,700여 대를 임대해 약 40억원의 농업생산비 절감 효과를 냈다.

이밖에도 영농부산물 파쇄 장비 지원, 현장



출동, 농기계 안전교육 등 다방면으로 농가를 지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29종목으로 늘린다

무안군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별,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5종목이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의 컬러풀 페스티벌, 색채 의자로 물드는 섬 이야기

맞춤형 섬 컬러 의자로 특색·문화 전달

신안군은 14개 읍·면의 대표 색상 컬러 의자를 구매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각 읍·면의 특성과 자연경관, 문화를 반영한 색채를 선정하여 축제 및 행사 등에 맞춤형 컬러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작은 소품 하나에도 섬 고유의 색채를 담아내고자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플렉스 안좌면에는 보라색, 수선화의 섬 선도에는 노란색, 흥매화와 툄립의 섬 입자면에는 빨간색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컬러 마케팅이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읍면별 고유 색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섬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역 고유의 색채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30년 이상 경과 노후 상수도관 6.5km 교체

53억 투입 버스터미널 주변 등 7개 구간 도로 굴착 당일 복구, 교통혼잡 피해 작임

전남 목포시는 올해 사업비 53억여원을 투입해 버스터미널 주변 등 7개구간 종연장

6.5km에 이르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착공한 목포과학대~석현동 버스차고지 구간 2.9km과 동초등학교~산정농공단지 구간 1.2km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연동초

등학교 등 5개소 2.4km구간은 상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방 상수도현대화사업(2019~2024)의 일환으로 매설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 중 부식이 심한 정도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해 교체 대상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해에도 이로서장 주변을 비롯한 6개소의 수도관 4.6km를 정비해 누수로 인해 새나가는 수돗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율

수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높였다.

시는 공사기간 중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굴착 구간은 당일 복구 및 임시포장을 시행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함평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친절교육 실시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를 앞두고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함평군지부(지부장 문선호)가 주관하고 함평군이 후원한 이번 위생교육은 지난 26일 함평군엑스포 주재영상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렸다.

이번 교육은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업자 친절 서비스 교육 △식품위생법 교육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 단주 행복주택 추가 공급... 44.58㎡형 미계약 물량 임대료, 주변보다 60% 저렴...내달 4일부터 청약 접수

영광군이 영광단주 행복주택 미계약 잔여 물량을 추가로 공급한다.

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단주 행복주택 공급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공급 호수는 44형(전용면적 44.58㎡·23평형)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계층 당첨자 54가구와 예비자 34가구다.

이번 추가모집에선 앞서 입주자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잔여 세대 물량을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순위 내 경쟁 시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는 청년 계층에 공급한다. 영광단주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60%까지 저렴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청년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495만6000원

에 월 임대료는 20만1000원 수준이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월 임대료로 23만6000원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 복지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한다.

추가모집 청약 접수는 오는 4월4일부터 8일까지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이들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광군청 별관 1층 소회의실 현장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누리집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에서 공고명을 '영광단주'로 검색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